

죽음 정치와 폭력의 지형학: 멕시코의 프론테라노르테와 사악 발렌시아의 ‘고어 자본주의’ 담론*

황미선
서울대학교

황미선(2021), 죽음 정치와 폭력의 지형학: 멕시코의 프론테라노르테와 사악 발렌시아의 ‘고어 자본주의’ 담론, 이베로아메리카연구, 32(1), 79-97.

초록 본 연구는 멕시코의 여성주의 이론가인 마르가리타 사악 발렌시아 트리아나(Margarita Sayak Valencia Triana)가 2010년에 주창한 ‘고어 자본주의’(capitalismo gore)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프론테라노르테’(Frontera Norte)라고 불리는 멕시코의 접미 국경지대에서 담론적 사건으로서 등장하는 소비-중심적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죽음 정치, 통치성(governmentality) 등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렌시아가 고어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제시한 마약국가(Narco-nación), 고어 소비(consumo gore), 엔드리아고 주체(sujeto endriago), 범죄자 계층(clase criminal), 고어 프롤레타리아(proletariado gore), 신마피아(nueva mafia), 죽음 권력(necropoder) 등의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고어 자본주의의 형성에서 지니는 의미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에 대해 살펴본다.

핵심어 고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과잉소비주의, 죽음 권력, 엔드리아고 주체, 여성 살해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3693).

I. 서론

본 연구는 멕시코의 여성주의 이론가인 마르가리타 사악 발렌시아 트리아나(Margarita Sayak Valencia Triana)¹⁾가 2010년에 주창한 ‘고어 자본주의’(capitalismo gore) 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프론테라노르테’(Frontera Norte)라고 불리는 멕시코의 접미 국경지대에서 담론적 사건으로서 등장하는 소비-중심적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죽음 정치, 통치성(governmentality) 등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멕시코의 프론테라노르테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극심한 폭력을 경험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폭력 문제는 마약카르텔 활동과 관련이 있는 폭력(narcoviolencia), 공권력에 의한 제도적 폭력, 정치적 대립을 원인으로 하는 정치적 폭력 등이 오랜 세월에 걸쳐 악화된 결과로 설명되어 왔다(Bercovich & Cruz 2019, 10). 특히, 2006년 12월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 행정부가 ‘마약조직과의 전쟁’(Guerra contra el narcotráfico)을 개시한 이래 군경과 마약조직 간은 물론이고 경쟁 관계에 있는 카르텔들 간의 충돌이 심화되며 시날로아 카르텔, 티후아나 카르텔 등과 같은 대형 카르텔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경지대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발렌시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프론테라노르테의 또 다른 특징적인 폭력으로 ‘여성살해’(feminicidio)에 주목하였다. 이 문제가 폭력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과 차별적인 이유는 그 비가시성(invisibilidad)과 불가해성(ininteligibilidad)에 있었다. 1990년대 초부터 여성 살해 문제가 시우다드 후아레스(Ciudad Juárez) 등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나 중앙정부와 주류언론의 주목과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에 이

1) 1980년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 티후아나 출생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콤플루텐세 대학교(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멕시코 프론테라노르테연구대학교(Colegio de la Frontera Norte) 문화연구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르러서였다(Segato 2013, 11-12). 10년이 넘도록 고문의 흔적과 신체 훼손이 나타나는 여성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당 이뤄져야 할 수사나 진지한 대응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로컬 활동가들과 이들이 연대한 국제 NGO들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 온 비판이었다.

발렌시아는 이러한 극단적 폭력이 난무하는 프론테라노르테의 현실을 ‘고어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발렌시아에게 ‘고어 자본주의’는 제1세계 국가와 제3세계 국가 간의 국경지대라는 프론테라노르테의 특수한 지정학적·지경학적 배경과 소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전지구적(global) 확산 및 극단화가 낳은 복합적인 현상이다.

다음 장들에서는 발렌시아가 고어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제시한 마약국가(Narco-nación), 고어 소비(consumo gore), 엔드리아고 주체(sujeto endriago), 범죄자 계층(clase criminal), 고어 프롤레타리아(proletariado gore), 신마피아(nueva mafia), 죽음 권력(necropoder) 등의 개념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고어 자본주의 형성에서 지니는 의미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II. 고어 자본주의의 형성

1. 고어 자본주의의 탄생

발렌시아는 자신의 2010년 저작 『고어 자본주의』(Capitalismo gore)의 서문에서 제1세계 국가와 맞닿아 있는 제3세계 국가의 “국경 지역에서 작동하는 전 지구적인 헤게모니 경제에 대한 재해석을 위해 ‘고어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그 사례로서 멕시코의 접미 국경지대에 위치한 티후아나의 경우를 분석한다.”고 밝힌다(Valencia 2010, 15).

우선 ‘고어 자본주의’의 수식어인 ‘고어’(gore)는 유혈이 낭자한 폭력적인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는 데 초점을 둔 영화장르인 고어 영화(gore film), 즉 스플래터 영화(splatter film)로도 불리는 공포영화의 한 하위 장르의 명칭에서 차용

된 것이다(Valencia 2010, 15).

극단적 폭력과 공포를 의미하는 ‘고어’라는 단어로 ‘자본주의’를 형용함으로써 발렌시아는 ‘자본주의’의 폭력적 성질 또는 폭력적 결과를 강조하는데, 그녀는 이 개념을 자신의 고향이자 “라틴아메리카의 마지막 모퉁이”(la última esquina de Latinoamérica)로 불리는 멕시코의 티후아나와 같이 제1세계 국가와 제3세계 국가가 맞닿아 있는 국경지역에서 오늘날 목격되고 있는 납치, 인신매매, 살인 등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

발렌시아는 고어 자본주의의 탄생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아우르는 20년 동안 공고화되어 전지구적으로 작동하는 신자유주의와 소비주의의 포식성과 과잉이 제1세계와 접촉하는 제3세계의 국경지대에서 유발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설명한다(Valencia 2010, 67).

1971년 금태환 중지를 선언한 닉슨 조치로 인해 브레튼 우즈 체제가 사실상 붕괴된 이후, 1973년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의 전환, 같은 해 제4차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제1차 석유파동(1973-74년) 발생, 1979년 이란 혁명과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 등으로 인한 제2차 석유파동(1978-81년)을 거쳐, 1989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까지 약 20년 간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치적으로 신보수주의를 양축으로 하는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가 구축되었다.

이 신세계질서는,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의 표현을 빌리자면, ‘탈취에 의한 축적’과 ‘강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개입’이라는 두 원칙이 결합하여 작동하는 체제로, 일상생활과 환경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상품화의 촉진, 국가기능의 경찰국가로의 축소, 사회복지의 철회, 위협의 개인적 책임으로의 전가, 노동시장의 시공간적 조정, 환경 퇴락의 가속화 등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하비 2007, 9).

발렌시아는 복지국가의 실패와 경제적 통치성으로의 대체가 ‘국민국가’(Estado-nación)에서 ‘시장국가’(Mercado-nación)로의 전환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Valencia 2010, 31). 시장국가에서 자본은 ‘시장자유화’(liberalización de los mercados)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정치적 제약들과 규제 환경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세계화(globalización)란 결국, 아무리 ‘자유로운 경쟁’(competencia libre), ‘평등’(igualdad) 등으로 포장될지라도,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의 탈규제화(desregulación)가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에 불과하다 확신한다(Valencia 2010, 31-32).

2. 시장국가와 나르코국가

발렌시아는 ‘고어 자본주의’ 개념을 제시하며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의 지배-종속 관계를 강조하는데, 포식적인 신자유주의의 특성인 ‘탈취에 의한 축적’이 일국 단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국민국가의 독립성 쇠퇴와 국가 간 상호의존 확대, 즉 국경의 투과성 증대에 따라 전 지구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일국 단위에서 모든 영역과 국가 장치가 기업의 운영자와 자본주의적 활동과 관련된 금융적·법적·기술적 장치들의 선도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작동하듯이(하비 2007, 52-53), 전 지구적으로 제3세계는 자본 축적을 위한 제1세계의 요구에 종속되어 있다.

세계화된 시장경제에서 제3세계는 제1세계의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 기능한다. 제1세계의 자본은 자국에 있던 생산기지를 임금과 부대비용이 저렴한 제3세계로 옮김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 과정에서 제3세계의 국가장치는 폭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개입을 통해 제1세계 자본과 이들의 지역 협력자들, 즉 국내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보장한다. 한편, 제3세계 시장은 과잉소비를 통해 제1세계 자본의 축적을 부여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중 매체는 일반 대중의 소비욕구가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상품에 대한 광고 폭탄을 투척한다(Valencia 2010, 33-34).

국민국가가 시장국가로 대체된 신자유주의적 과잉소비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더 이상 시민(ciudadano)이 아니라 소비자(consumidor)로서의 개인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이제 정체성은 출신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개인이 사

용하는 상품의 브랜드, 개인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나 스포츠 팀 또는 선수와 같은 문화상품, 개인이 입고 있는 옷이나 장신구의 스타일 등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러한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상품들의 소비는 제1세계 자본의 이익 창출로 이어진다.

발렌시아는 제1세계의 이익을 위한 제3세계의 복무가 단순히 합법 시장에 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마약과 밀수 등과 같은 불법 시장에서도 이뤄진다고 주장하는데, 대표적인 제1세계 국가이자 세계 최대 마약소비국인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제3세계 국가로서 멕시코의 경우, 이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마약이 주요한 수출 상품이 되었다.

발렌시아는 멕시코에서 마약이나 밀수와 같은 불법 시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멕시코의 정치와 경제는 마약이라는 불법 시장에서 탈출구를 찾았고, 마약이 정치와, 즉 정치적 부패와 결합하면서 범죄조직의 권력이 국가 권력에 대등한 수준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고, 범죄조직의 주요 거점인 접미 국경지대에서는 이들 범죄조직이 치안과 복지과 같은 국가 기능의 일부를 담당할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발렌시아는 멕시코화된 '시장국가'의 형태로서 '나르코국가'(narco-nación)라는 개념을 제시한다(Valencia 2010, 34-37).

3. 티후아나: 고어 자본주의의 수도

'나르코국가'에서 범죄조직의 활동은 합법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기회와 비용', '최소 투자 최대 이익' 등과 같은 시장 논리에 따른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조직에 대한 일반 사회의 인식 역시 중성화된다. 다시 말해, 범죄조직들이 참여하는 불법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 즉 범죄조직의 구성원 또는 협력자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합법 시장의 기업들에서 일하는 것과 동일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력은 기회를 위한 비용으로, 이익 창출을 위한 투자로, 자본 축적을 위한 생산수단으로 수용된다. 더불어 육체는 생산수단으로서 폭력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으로 변화한다. 즉, 육체에 가해지는 폭력, 죽음·신체 절단·납치·협박 등과 같이 폭력을 통해 육체에 발생하는 효과들은 대표적인 상품이 된다. ‘나르코국가’에서는, 전통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 계급이 맡고 있던 역할을,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 즉 범죄조직이 맡는다. 발렌시아는 이러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 ‘신체에 폭력을 가할 수 있는 권력’을 ‘죽음 권력’(necropoder)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폭력이 ‘자본’이 되고 ‘신체’가 상품이 되며, ‘죽음 권력’을 통해 자본 축적이 이뤄지는 자본주의 형태를 ‘고어 자본주의’라고 정의한다.

발렌시아는 ‘라틴아메리카로의 관문’(puerta de entrada a América Latina)이라 불리는 국경도시이자 대표적인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접경 공간인 티후아나를 ‘고어 자본주의’의 수도(capital)라고 부른다(Valencia 2010, 126).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티후아나에 대한 일반화된 세 가지 이미지, 즉 ‘포스트 모더니티의 실험장’(laboratorio de la posmodernidad),²⁾ ‘이동의 도시’(ciudad de paso), ‘악습의 도시’(ciudad de vicio)에 대해 언급한다.

바하칼리포니아(Baja California)주의 주도인 티후아나(Tijuana)는 인구 기준으로 멕시코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217만 명)로³⁾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와 맞닿아 있는 태평양 연안 국경 도시이다. 1960년대 멕시코 정부가 해외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 접미 국경도시에 마킬라(maquila)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티후아나는 과거 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향락도시에서 보세가공 산업도시로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하였고,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며 티후아나는 멕시코의 주요 수출도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성장과 함께 1990년대부터 티후아나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분과학

2) 멕시코 출신 문화이론가 네스토르 가르시아 캅클리니(Néstor García Canclini)가 1989년 저서 『혼종문화』에서 제시한 표현이다.

3) <https://populationstat.com/mexico/tijuana>, 2021년 3월 기준.

문에서 이뤄졌는데, 특히 당시 포스트근대성(posmodernidad)에 대한 연구 붐(boom) 속에서 티후아나는 뉴욕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포스트근대성의 실험장’으로 인식되었다(Valencia 2010, 126).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티후아나는 “근대성과 모순성이, 세계시민성과 지역성이 공존하는 도시”(García Canclini 1989, 293)로서 “노동과 자본의 세계화를 통해 국경에 의한 ‘경계 짓기’가 무의미해지는 공간”(김미경 2017, 141)이다.

멕시코 접미 국경지대의 여러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티후아나 역시 미국 영토에 샌디에고(San Diego)라는 쌍둥이도시를 가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계⁴⁾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번잡한 출입경 지점으로 알려진 티후아나와 샌디에고를 연결하는 산이시드로 출입경항(San Ysidro Port of Entry)을 통해 매일 7만 대의 자동차와 2만 명의 도보 입국자가 미국으로 들어온다. 발렌시아는 이러한 통계로 드러나는 합법적인 물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 더 나아가 언어, 문화, 건축 등과 같은 무형물의 이동이 지니는 중요성 역시 거론한다(Valencia 2010, 127-128).

한편, 티후아나를 ‘악습의 도시’라고 부르는 것은 제3세계가 제1세계에 제공하는 또 다른 재화와 서비스와 관련이 있다. 많은 미국인 관광객들이 음주, 마약, 매춘 등을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위해 티후아나를 찾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마킬라 산업이 성장하기 전까지 제1세계 시민을 위한 유흥과 향락 제공은 티후아나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경제활동이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기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1세계 시민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 제공의 가장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형태 중 하나는 불법 장기매매이다.⁵⁾

4) <https://www.gsa.gov/about-us/regions/welcome-to-the-pacific-rim-region-9/land-ports-of-entry/san-ysidro-land-port-of-entry>

5) “멕시코 여성 집단살인에 장기매매범 개입 확인”, 한국경제신문(2003.5.3.).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03050342798>. 발렌시아는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시장’(biomercado)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 주제로 남겨둔다.

발렌시아는 티후아나가 이러한 지리적 특성과 포식적 신자유주의와 과잉소비주의의 영향으로 ‘고어 자본주의’가 빠르게 형성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마킬라 산업의 성장과 함께 마킬라도라에서 일자리를 찾는 여성 노동자의 빠른 유입은 티후아나, 시우다드후아레스(Ciudad Juárez)와 같은 멕시코의 접미 국경지대 도시들에서 다수 발생한 여성살해(feminicidio)⁶⁾의 배경으로 제시된다(Valencia 2010, 133-137).

불법 시장의 성장과 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발렌시아가 ‘고어 자본주의’라 부르는 포식적인 신자유주의와 과잉소비주의가 만들어내는 수요를 죽음을 포함한 신체에 대한 폭력을 통해 충족시키는 독특한 형태의 경제 체제를 탄생시켰다. 티후아나는 이러한 폭력적인 자본 축적 시스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줌으로써 ‘고어 자본주의의 수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III. 엔드리아고: 고어 자본주의의 새로운 주체

1. 포스트포드주의와 엔드리아고 주체의 탄생

발렌시아는 멕시코 프론테라노르테에서 여성살해가 발생하는 배경과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고어 자본주의의 특성으로서 ‘엔드리아고 주체’(sujeto endriago)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개념이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보편적 개념이라고 부연한다(Valencia 2010, 84-93).

‘엔드리아고’(endriago)는 1504년 출판된 스페인 기사소설 『아마디스 데 가울라』(Amadís de Gaula)에 등장하는 사람과 히드라와 드래곤의 모습을 한 괴물로, 발렌시아는 황량한 지옥과도 같은 섬으로 묘사되는 이 괴물의 근거지가 오늘날 제1세계와 제3세계의 국경지대 모습과 흡사하다며, 고어 자본주의를

6) 유엔여성기구(UN Women)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1985년부터 2017년까지 총 55,791명의 여성살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https://mexico.unwomen.org/es/digiteca/publicaciones/2019/05/infografia-violencia-feminicida-en-mexico#view>

대표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새로운 주체에게 이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한다 (Valencia 2010, 89-90).

발렌시아에게 엔드리아고 주체의 등장은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mo)와 관련이 있다(Valencia 2010, 90). 요시유키 사토는 낸시 프레이저를 인용해 포드주의 체제에서 포스트포드주의 체제로의 이행을 첫째, 일국적 규제 체제의 탈중심화와 전지구화된 다층적 시스템 출현, 둘째, 국민국가의 틀 안에 작동하던 (일국적인) 공적 복지 영역의 해체, 셋째, (포드주의적 주체의) 자기 규제의 쇠퇴와 폭력적 억압의 회귀라는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고, 결국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이행은 포드주의를 통해 구축된 국민국가 중심의 자기 규제적 혹은 자기 규율적 복지국가 체제가 쇠퇴하고 탈규제, 유연성, 다양성, 자기 책임으로 표현되는 시장 원리와 경쟁 원리가 지배하는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라고 설명한다(사토 2014, 27-29).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 정책을 채용한 많은 나라들이 대대적인 세수 감소와 사회보장 지출 증가로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었고 '경제적인 것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로의 이행이 1970년 후반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적 통치 비전은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를 '기업'으로 대체"하는 것, 즉 개인, 가족과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단위를 투자, 생산, 비용을 관리하는 기업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회체 내부에 시장 원리와 경쟁 원리를 파급시키는 것이다(사토 2014, 47). '시장=경쟁'이라는 방정식이 진리가 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 체제에서 개인은 자기의 향상을 위해 자기에게 투자하고 자기의 비용을 철저히 관리하는 '자기 자신의 기업가'로 나타난다. 푸코를 인용한 사토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자유주의적 시장 원리를 내면화하고 그것에 기초해 자기를 경영하는 경제적 주체,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로 등장한다(사토 2014, 54-55).

비경제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을 경제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사

고가 주입된 사회, 다시 말해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사회에서는 범죄와 형벌 역시 새로운 정의를 가지게 된다. 푸코는 『생명정치의 탄생』이라는 제목이 붙은 1978~1979년 콜레주드프랑스 강의의 제10강에서 범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정의, 질적 정의, 도덕적 정의도 부여하지 않는 프랑스 형법을 언급하며 신자유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범죄란 개인으로 하여금 형벌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며, 결국 범죄자 역시 “어떤 행위로부터 어떤 이득을 기대하는 동시에 어떤 리스크를 예상하면서 그 행위를 저지를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행위 주체”,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다름 아니다 (푸코 2012, 351-354).

발렌시아의 ‘엔드리아고 주체’로 다시 돌아와 살펴본다면, 부와 권력을 축적하기 위해 극단적 폭력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 이 범죄자적 주체의 등장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 즉 높은 이득(폭력 사용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이익)과 낮은 리스크(면책과 불처벌)를 근거로 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범죄자 계층: 멕시코의 새로운 사회계층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부정적 발현으로서 엔드리아고 주체의 등장은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사회적 진화과정이 그러하듯, 각 지역의 환경에 따라 주체의 발현 형태는 달라진다. 발렌시아는 멕시코 ‘프론테라노르테’라는 지리적 맥락에서 엔드리아고 주체의 등장과 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르코문화’(narcocultura)라는 멕시코의 역사적, 사회문화적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Valencia 2010, 68).

멕시코 프론테라노르테는 식민지 시대부터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변방지대로 다양한 형태의 범죄자와 범죄조직들이 활동해 왔고, 이들에 대한 일종의 동경과 공감의 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에게 ‘쾌걸 조로’(Zorro)로 알려진 미국 펄프 매거진 작가 존스톤 매컬리의 1919년 소설에 등장하는 다크 히어로와 ‘빈자들의 천사’, ‘나르코성인’으로 불

리며 지역적으로 숭배신앙의 대상이 된 헤수스 말베르데(Jesús Malverde)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날로아 카르텔의 대부인 ‘엘 차포’(El Chapo)로 불리는 호아킨 구스만(Joaquín Guzmán)의 경우와 같이, 발렌시아는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범죄자들이 대중매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의해 마치 21세기형 록스타와 같이 도시 빈민가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나르코코리도(narco-corrido)와 같은 하위음악장르가 이러한 범죄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한다(Valencia 2010, 68-76).

발렌시아는 멕시코 프론테라노르테의 사회문화적 전통과 더불어, 국민국가의 국민통합기능 실패와 자신이 ‘고어 소비’(consumo gore)라고 불리는 ‘고어 자본주의’ 상품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범죄자 계층’(clase criminal)이 하나의 사회 계층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즉, 이 지역에서 범죄는 하나의 경제활동으로서 용인되고, 특히 시민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교육, 일자리, 보건 등의 국가의 기본 서비스로부터 배제된, 특히 도심 빈민가와 시외 지역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범죄자가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3. 고어 프롤레타리아(proletariado gore)

발렌시아에 따르면, 범죄조직 역시 일반적인 노동 분업 원칙에 따라 다양한 그룹으로 분화된다. 합법 시장의 일반 기업이 소유주, 전문경영인으로부터 정규직 직원, 비정규직 직원, 인턴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로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조직 역시 소유주에 해당하는 카르텔 보스로부터 최말단 마약 소매판매책 또는 대개의 경우 미성년자인 비전문 청부살인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범죄자가 존재한다.

발렌시아는 이중에서 마르크스의 용어로 프롤레타리아, 즉 무산 노동자 계층에 해당하는 하층 범죄자들을 ‘고어 프롤레타리아’(proletariado gore)라고 부르며 이들의 형성과 역할에 주목하는데, 이들은 합법 시장은 물론이고 불법 시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으로 폭력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

가 많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 일자리, 보건 등 국가의 기본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없는, 소위 ‘미래가 없는’(no futuro) 세대이다.

이들은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 있어 대중 매체가 쏟아내는 상품 광고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 성공한 범죄자들과 이들이 상징하는 ‘일확천금’의 삶을 동경한다. 따라서 이들은 범죄조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며 쉽게 빠져든다.

또한 발렌시아는 이들에게 발견되는 ‘범죄적 남성성’(masculinidad criminal)에 주목하는데, 그녀는 남성적인 힘이 많이 요구되는 폭력범죄의 일반적인 특성과 변방인 멕시코 프론테라노르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그 원인을 추정한다. 즉, 발렌시아가 부르는 하층의 ‘엔드리아고 주체들’은 삶의 방식으로, 노동 방식으로, 사회화의 방식으로, 문화의 방식으로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한다 (Valencia 2010, 93).

IV. 죽음 권력과 장식적 폭력

1. 죽음 권력

발렌시아는 앞서 살펴본 멕시코 프론테라노르테의 상황을 볼 때 이 지역에서 통치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주장한다. 발렌시아는 이 주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카메룬 출신 철학자 아쉴 음벰베(Achille Mbembe)가 2003년 주창한 ‘죽음 정치’(necropolitics) 개념을 도입한다. 명칭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음벰베의 ‘죽음 정치’는 미셸 푸코가 1970년대 후반 콜레주드프랑스에서 진행한 강의들을 통해 제시한 ‘생명 정치’(biopolitics)⁷⁾와 대구를 이루는 개념으로, 제3세계, 변경지대, 포스트식민지역, 제4세계 등과 같이 소위 “문명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들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

7) 2012년 출판된 푸코의 1978~1979년 콜레주드프랑스 강의의 한글 번역본에서 역자들은 ‘biopolitics’를 ‘생명관리정치’로 번역하였지만, 본 연구에는 음벰베의 ‘죽음 정치’를 고려하여 ‘생명 정치’로 옮긴다.

성(지배와 복종)을 설명하기 위해 주조되었다.

발렌시아는 ‘죽음 권력’(necropoder)이란 “육체와 인구를 복종시키기 위해 폭력의 과잉전문화(sobreespecialización de la violencia)를 근본 요소로 통합하고 죽음을 주는 과정을 상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 정치 통치기술의 전유 또는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죽음 실천’(necroprácticas)이란 육체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급진적인 행동들을 말한다고 소개한다(Valencia 2010, 147).

발렌시아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권력이 생명권력을 통한 생명정치를 실행하는 데 반해, 죽음 권력을 통한 죽음 정치는 앞서 소개한 엔드리아고 주체에 의해 집행되는데, 두 경우 모두 권력의 보존을 위해 폭력 사용에 의지한다. 그러나, 엔드리아고 주체가 실행하는 죽음 정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고어 자본주의의 주체가 구현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엔드리아고 주체는, 멕시코 프론테라노르테에서 이들이 국가권력과 대결하며 일종의 ‘병행 국가’(Estado paralelo)를 구축하는 것 같이, 죽음 권력을 획득하고 신자유주의적인 과잉소비주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폭력을 통해 국가의 권력장치를 재점유한다. 둘째, 죽음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규율사회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셋째, 엔드리아고 주체들 역시 결국 디스토피아적이지 않은 저항 전략을 구상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규율사회(sociedad disciplinar)의 대부분의 복종하는 주체(sujetos sujetos)가 소속된 각각의 특수하고 지정학적인 맥락에 위치한 인구(población)에서 나타난다(Valencia 2010, 149).

2. 장식적 폭력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발렌시아는 엔드리아고 주체의 폭력 사용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과잉소비주의의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멕시코 프론테라노르테에서 목격되는 폭력의 ‘장식적인’(decorativo) 기능, 즉 ‘폭력의 미학’(estética de la violencia)과 연결시킨다(Valencia 2010, 156).

우선, 발렌시아는 조지프 슈페터(Joseph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

(destrucción creativa) 개념을 인용하며 자본주의의 본질은 혁신이며 창업과 혁신을 통한 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이 지탱된다고 설명하고, 이 원칙은 ‘고어 자본주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전쟁기술과 고문기술의 도입을 통한 폭력의 과잉전문화(sobreespecialización de la violencia)가 그 방식이라고 주장한다(Valencia 2010, 104).

이러한 폭력의 과잉전문화는 각 범죄조직이 트레이드마크이라 할 수 있는 초전문화된 폭력 사용을 통해 고어 시장(mercado gore)에서 명성을 갖도록 만들고, 이는 다시 각 범죄조직의 ‘압도적 권력 과시 욕구’와 대중 매체의 이해 관계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각 범죄조직이 경쟁적으로 살해를 포함한 새로운 처벌방식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경고와 협박의 메시지를 내놓도록 만든다. 이러한 방식으로 육체가 범죄조직의 독특한 자본축적 전략으로 활용되며 죽음의 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단절이, 즉 희생으로서의 죽음, 소비상품으로서의 죽음, 쾌락상품으로서의 죽음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관계의 생성이 발생한다(Valencia 2010, 105-112).

V. 결론

발렌시아는 현재의 티후아나(Tijuana)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폭력, 범죄, 죽음 권력을 토대로 작동하는 고어 자본주의라는 현실과 그 현실 속에서 이뤄지는 인식의 전환, 더 나아가 세계화의 디스토피아적인 단면들을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녀의 연구는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디스토피아적 현실로부터의 구원이나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는 고어 자본주의의 극단적 현실에 대한 완결된 분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녀의 연구 목적은, 콜린 크라우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부정적 현실을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괴롭히고 폭로하는 것”이며,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포식적인 자본주의와 다른 사회 질서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

로 경제심을 유지하는 것”이다(크라우치 2012, 10).

우선, 발렌시아는 제3세계의 고어 자본주의 현상이 제3세계에 대한 위계적이고 신식민주의적인 서구 중심주의적 해석의 실패를 보여준다. 그녀에게 제3세계의 상황은 유럽의 근대성 프로젝트가 불완전하게 혹은 잘못 적용되어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바로 이 유럽의 근대성 프로젝트의 진화형태인 폭식적인 신자유주의와 과잉소비주의의 결과이나 미래에 제1세계 역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발렌시아는 ‘고어 자본주의’의 새로운 주체로서 ‘엔드리아고 주체’라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 특히 멕시코 북부국경지대와 같이 제1세계와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제3세계 지역에서 관찰되는 독특한 ‘주변부 남성성’(masculinidad marginalizada)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녀의 설명(Valencia 2010, 173)에 따르면, 이 제3세계적 남성성은 사회 계층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종속 계층에 속하며 자본주의적이고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제적인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구조적인 실천적 요소들을 내면화하여 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권력 유지에 기여한다.

그러나 엔드리아고 주체들은 한편으로는 포식적인 신자유주의와 과잉소비주의가 낳은 부정적인 현실과 국민국가의 실패, 국가권력의 잘못된 적용이 만들어낸 현실의 증거로서 이에 대한 비판지점을 제공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폭력적인 국가장치와의 대립과 국가권력의 강탈은, 모순적 다중(multitudes contradictorias)으로서 엔드리아고 주체들의 저항으로서, 정당한 통제 시스템 내부에서의 불복종과 통치불가능성의 실제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엔드리아고 주체가 지니는 담론적 가치에 대한 고려와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즉, 범죄와 폭력을 통해 과잉소비사회의 요구와 자본주의적 종속화 과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 소비를 통한 사회화 형태, 국가적 생명 정치 고유의 통제와 과잉감시 형태로서 폭력 사용을 위한 국가의 정당성과 절대적 권한에 대한 실천적 문제제기로서의 가치에 대한 검토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본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발렌시아가 “주변부 남성

성에 뿌리를 둔 고어 자본주의의 엔드리아고 주체성을 전복시키기 위한 정치적 실천이자 인식론적 범주”(Valencia 2010, 173)로서 제시한, 각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차이를 내포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점진적 세계화가 낳은 신체적, 심리적, 미디어적 결과들을 공유하는, 새로운 페미니즘으로서 ‘트랜스페미니즘’(transfeminismo)와의 비교, 분석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후속 연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미경(2017), 「세계화 시대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의 여성이주와 젠더폭력」, *Homo Migrants*, Vol. 17, pp. 139-170.
- 사토, 요시유키(2014), 『신자유주의와 권력: 자기-경영적 주체의 탄생과 소수자-되기』, 김상운 옮김, 후마니타스.
- 아감벤, 조르지오(2008), 『호모사케르: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박진우 옮김, 새물결.
- 크라우치, 콜린(2012), 『왜 신자유주의는 죽지 않는가』, 유강은 옮김, 책읽는수요일.
- 푸코, 미셸(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 오트르망(심세광, 전해리, 조성은) 옮김, 난장.
- 하비, 데이비드(2007),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최병두 옮김, 한울.
- Barquintero del Toro, Sara(2019), “Criminales globales. Consideraciones en torno a Capitalismo Gore, de Sayak Valencia”, *Astrolabio. Revista internacional de filosofía*, No. 23, pp. 54-68.
- Bercowich H., Susana, and Salvador Cruz Sierra (eds.)(2015), *Topografías de las violencias: alteridades e impasses sociales*, Tijuana: El Colegio de la Frontera Norte.
- Despentes, Virginie(2007), *Teoría King Kong*, Barcelona: Mlusina.
- García Canclini, Néstor(1989), *Cultur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 México D.F.: Grijalbo
- Mbembe, Achille(2003), “Necropolitics”, trans. Liby Meintjes, *Public Culture*, Vol. 15, No. 1, pp. 11-40.

- Sagato, Rita(2013), *La escritura en el cuerpo de las mujeres asesinadas en Ciudad Juárez*, Buenos Aires: Tinta Limón.
- Valencia Triana, Sayak(2018), *Gore Capitalism*, trans. John Pluecker, Cambridge: The MIT Press.
- _____(2014), “Teoría transfeminista para el análisis de la violencia machista y la reconstrucción no-violenta del tejido social en el México contemporáneo,” *Universitas Humanística*, No. 78, pp. 65-88.
- _____(2012), “Capitalismo gore y necropolítica en México contemporáneo,” *Relaciones Internacionales*, No. 19, pp. 83-102.
- _____(2010), *Capitalismo gore*, Barcelona: Melusina.

황미선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tierna01@snu.ac.kr

논문투고일: 2021년 3월 29일
심사완료일: 2021년 4월 20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26일

Necropolitics and Topography of Violence: The *Frontera Norte* of Mexico and Sayak Valencia's "Gore Capitalism"

Miseon Hw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wang, Miseon(2021), "Necropolitics and Topography of Violence: the Frontera Norte of Mexico and Sayak Valencia's 'Gore Capitalism',"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2(1), 79-97.

Abstract This paper is an attempt to reconsider problems like consumption-oriented capitalism, neoliberalism, necropolitics, governmentality, etc. which appear as discursive events in the Mexico-US borderlands called as the Frontera Norte, through a critical analysis about the concept of Gore Capitalism, proposed by a Mexican feminist theorist Margarita Sayak Valencia Triana in 2010. In this paper, explained are concepts like Narco-Nation, Gore Consumption, Endriago subject, Criminal class, Gore proletariat, New mafia, necropower, etc. which are presented as main characteristics of Gore Capitalism by Sayak Valencia. In addition, reviewed are the roles of these concepts on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Gore Capitalism and the implications that the concepts give to our generation who lives in the contemporary period.

Key words Gore Capitalism, Neoliberalism, Hyperconsumerism, Necropower, Endriago subjects, Femicide